

지역 매 아 리

김제시보건소, 마을 영양교육

김제시보건소(보건소장 김형희)는 고령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역할 확대 및 근로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농번기철 공동급식을 운영하는 경로당 16곳을 대상으로 5월부터 6월까지 2회씩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내용으로는 주방 위생상태 관리 교육, 열도계를 이용한 국 또는 찌개 열도 측정, 미각테스트를 통한 나의 짭맛 예민 정도 바로알기, 올바른 장보기를 위한 식품 구매 방법, 보건소 내 연계사업(구강교육 및 금연교육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교육 후 어르신들의 개별 영양문제 상담 및 궁금증 해소를 위해 1:1 맞춤형 상담(고혈압, 빈혈, 골다공증 등)의 식단도 진행되고 있어 평소 영양관련 지식에 대해 많은 궁금증이 있었던 어르신들에게 호응도가 매우 높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공통식 생활지침에 맞게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영양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공동급식 대상마을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교월동 우리동네 맞춤 해결사

독거노인 전기보수·등교제 작업

김제시 교월동 우리동네 맞춤해결사는 23일 오전 9시에 복지기동대원을 비롯한 복지장상님들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독거노인, 장애인세대를 방문하여 노후화된 전선 및 전등을 교체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점점 더 무더워지는 날씨에도 우리동네 맞춤해결사의 참여의지는 식지 않았다. 각자의 생업이 있고 바쁜 와중에도 독거노인 분들에게 봉사하는 기쁨을 잊지 않고 지역사회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에 지역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하다.

이번에는 구산마을 조모할머니와 10세대를 방문하여 전선이 노후화되어 화재위험이 있고 침침한 전등을 LED전등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에 최창민 복지기동대장은 "단순히 등을 교체하고 전선을 바꾸는 형식적인 봉사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번 대상자로 선정되신 구산마을의 조모할머니는 "불을 켜도 집안이 캄캄하여 불편했는데 도와주시고동안은 분들 덕분에 집안이 환해져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FIFA 러시아 월드컵 개막 앞두고

현대차, 팬파크 이벤트

국가대표팀 본선 경기 맞춰 전국 6개 테마 응원

현대자동차가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개막을 앞두고 고객과 함께하는 색다른 응원 이벤트를 마련한다.

23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러시아 월드컵 기간 동안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본선 경기인 스웨덴·멕시코·독일 전(戰) 일정에 맞춰 전국 곳곳에 6가지 테마의 팬파크를 마련하고 고객을 초청해 경기를 함께 관람하는 '다양한 팬파크 이벤트'를 실시한다.

FIFA(국제축구연맹) 공식 후원사인 현대자동차는 월드컵 경기 당일 고객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경기를 관람하며 전 세계인의 축제를 특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팬파크 이벤트를 마련했다.

국가대표팀 첫 경기인 스웨덴 전이 열리는 6월 18일에는 파자마를

입고 집처럼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파자마 팬파크'를 서울과 부산 2곳에서 운영하며, 광주와 충남 아산에서는 애견인들이 반려견과 함께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애견 팬파크'를 운영한다.

멕시코 전이 열리는 24일에는 전국 대표인 하석주 아주대 감독이 진행하는 해설과 함께 월드컵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하석주 팬파크'가 이태원에 마련되며, 축구를 사랑하는 청각장애인들이 월드컵을 즐길 수 있도록 수어 중계를 제공하는 '수화 해설 팬파크'를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운영한다.

본선 마지막 경기인 27일 독일 전에는 여의도 한강 유람선에서 혼자 축구 보기 외로운 선남선녀 50살을 초대해 경기 관람을 비롯해 스피드 미팅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된 '사랑의 유람선 팬파크'와

강남 영동대로에서 인기 아이돌 그룹 우주소녀와 함께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우주소녀 옆자리 팬파크'를 운영한다.

현대자동차는 6가지 '다양한 팬파크 이벤트' 외에도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나만의 팬파크를 만들어주는 '만들고 싶은 팬파크 이벤트'도 진행한다.

만들고 싶은 팬파크 이벤트'는 원하는 장소와 사연을 신청하면 현대자동차가 선정된 고객들이 원하는 곳에 빈프로젝터, 스크린, 현대자동차 브랜드 응원도구, 야식 등을 지원해주는 나만의 팬파크를 만들어주는 이벤트다.

'다양한 팬파크 이벤트'와 '만들고 싶은 팬파크 이벤트'에 참가를 희망하는 고객은 6월 27일까지 현대자동차 팬파크 사이트(www.variousfifaworldcup.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조선말 천주교박해를 피해온 신자들에 의해 조성된 백산면 부거리 용기가마 일원에서 지난 19일 열린 용기종기 음악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김제 용기종기음악회 성료

부거리 용기가마 불 지피기·전통국악 무대

조선말 천주교박해를 피해온 신자들에 의해 조성된 백산면 부거리 용기가마(국가등록문화재 403호)일원에서 지난 19일 열린 용기종기 음악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부거리 용기가마일원에서는 25년간 전통용기제작방법을 이어오고 있는 정라북도 무형문화재 53호 용기장 안시성 선생의 가마불지피기 및 용기이야기를 시작으로 제작된 용기가 잘 구워지기를 소망하는 고사 세레머니 전북의 전통국악인들의 음악회가 부거리 용기마을 주민들과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관람객들의 호응속에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한편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일한 용기가마라는 문화재의 의미함께 이날 행사의 감동을 한껏 고취시키기 위한 용기종기 음악회에서는 거문고 명인

권민정 선생(연희악 '술대질' 대표)의 연출로, 대통령상 수상자이자 김제출신의 명창 이종규선생과 전주대사습놀이 수상자인 최영인 명창 등 전북의 굵직한 전통문화예술인들이 출연해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행사는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사)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가 주관하고, 문화재청과 김제시에서 후원하는 사업으로, 문화재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양운업 김제시 문화홍보축제실장은 "부거리 용기가마라는 전통공간에서 전통국악이 함께 어우러져 의미가 더해진 것 같으며, 향후에도 전통이라는 큰 틀 안에 유형문화와 무형문화를 결합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삼례시장 복합상업문화공간 재탄생

7월 개장 목표... 지상 2층 규모·문화시설·주차장 조성

완주군의 삼례시장이 복합상업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완주군은 오는 7월 개장을 목표로 삼례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삼례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전체 사업면적 5578㎡, 연면적 2772㎡, 지상 2층 규모로 상가 48개, 문화시설 등이 들어서 복합상업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시장 맞은편에는 전체사업 면적 5030㎡에 150면 규모의 주차장

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이날부터 점포 입점을 시작해 오는 7월 개장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앞서 삼례시장은 총 48개 점포 중 기존 삼례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점포배정을 완료했다. 또한 잔여점포 10개소에 대해서는 상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모집 절차를 거쳐 지난 18일 입점 대상자를 최종 결정했다. 1960년대에 개설된 삼례시장은 군 소유의 공설시장으로, 시설노후화

를 겪어왔다. 이에 따라 안전문제와 폐점 등으로 인한 공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를 해결하고자 완주군과 시장상인들은 삼례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에 힘을 모았고, 지난 2013년 삼례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선정된 후, 사업을 추진해왔다.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은 "삼례시장 현대화가 완료되면 주민편의도 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옛 정취를 되살리고 인정이 넘치는 중심상권 및 지역명소로서 재도약할 것이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보건소, 한울타리 행복의집 걷기 운동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에서는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한울타리 행복의집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네한바퀴 취업취업 걷기운동'을 주제로 만성 질환자 및 건강취약요인을 갖고 있는 10개소 한울타리 행복의집(그룹-

홈)을 선정하여 걷기 운동을 실시한다.

최근 만성질환의 증가로 평생건강 관리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걷기 운동을 통해 규칙적인 운동 및 자가 건강관리를 함으로써 건강

생활 실천을 향상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올바른 운동을 통한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 및 운동 불조성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칙적이고 올바른 걷기운동에 대한 교육 및 기초 건강 체크 병행을 통하여 만성질환으로 힘들었던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인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